



2011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인문계열 문제지

| | | | | | | | | | | | |
|------|--|------|--|------|--|----|--|------|--|------|--|
| 지원전형 | | 모집단위 | | 수험번호 | | 성명 | | 좌석번호 | | 감독확인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의무와 권리는 사회 질서의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무는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권리를 전제합니다. 권리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의무를 보유한 사람과 권리를 보유한 사람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을 때에도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의무인가’를 깊이 파고드는 건 결국 ‘무엇이 권리이고, 왜 그것은 권리로서 정당화되는가?’를 헤아리는 일과 동일시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를 객관적인 어조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패러디 같은 정치 풍자물로 조롱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그게 국민의 의무가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지요. 이때 “누구나 조롱당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되돌아옵니다. 여기에 “아니다. 형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취해서 정치가를 비판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이다”는 식으로 반론이 제기되며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제시문 2>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그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 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노인이었다.

.....<중략>.....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찌나?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해서 빛이란 게 없었다. 노인이 그걸 잊었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선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 없었다. 전부터도 그 점만은 안심을 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중략>.....

아닌게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은 모두 어린애가 되어 가는 것일까? 노인은 정말로 내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빛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빛만 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빛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썽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질 않던가 말이다.’

[눈길]

[문제 1] <제시문 1>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시문 2>의 화자의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시오. (800자 내외, 60점)

(뒷면에 계속)





2011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인문계열 문제지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인간 지혜의 결과는 아니다. 분업은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 부터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 성향이란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이다. 이 성향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기타 동물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할 때 동료의 자비만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의가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의 대부분을 상호간에 얻어낸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하는 방법이 교섭, 교환, 구매인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을 최초로 야기시키는 것은 이러한 교환 성향 때문이다. 수렵민족이나 유목민족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고 훌륭하게 활과 화살을 만들며, 그것들을 교환하여 동료들로부터 가축이나 사슴고기를 얻는데, 그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얻는 가축과 사슴고기가 직접 들에서 자기 스스로 잡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로부터 활과 화살의 제조가 그의 주된 업무가 되며 그는 일종의 무기 제조자가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대장장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복의 주요 부분인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끝손질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 하는 부분과 교환할 수 있다는 확실성 때문에 각자는 특정한 직업에 몰두해 그 전문직업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든다.

[국부론]

<제시문 2>

1991년 외국기업의 투자로 인도 방갈로르에 인공위성 통신망이 설립된 후에, 헬스 스크리브 인디아라는 미국회사가 방갈로르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의사와 병원을 위해 진단서를 필사하는 작업을 한다. 미국의사들은 손으로 쓴 진단서를 보고 디터폰(Dicta Phone)이라는 장치에 처방을 구술해 저장하고 비서나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필사하게 했다. 이런 일은 보통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렸다. 그러다 헬스 스크리브 회사가 의사의 구술처방을 음성 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로 저장해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의사는 언제라도 이 장치를 이용할 수 있었다. 위성통신 덕에 방갈로르에 거주하는 인도의 노동자인 주부나 대학생은 컴퓨터로 의사의 음성을 다운로드해 두 시간 내에 필사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 압축시켜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병원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송신할 수 있다. 미국과 인도는 열두 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미국의 의사들이 잠자는 동안 필사하고, 미국 의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적 분업을 가능하게 한 기술 혁신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고마운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미국의 5분의 1의 비용으로 필사업무를 안전하게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아웃소싱을 했다.

[세계는 평평하다]

* 아웃소싱: 기업의 기능 중 일부를, 예를 들어 연구개발이나 콜센터, 회계 같은 기능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것.

[문제 2] <제시문 1>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2>에 기술된 예와 같이 국제적 분업으로부터 예견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800자 내외, 40점)



2011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 논술시험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제시문 분석

■ 인문계열 1번 문제

1. 출제의도

- 1)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의 문제를, <제시문2>의 화자의 관점처럼 의무와 권리가 일대일 대응의 문제 인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각각의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에 대한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표현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 2) <제시문2>에는 가족과 같은 특수한 공동체에서도 의무와 권리는 일대일 대응 관계이며, 의무를 다하지 못 한 사람(어머니)에게는 권리가 없으며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화자/아들)에게는 의무가 없다는 화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 그러한 관점에 대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그것을 다양한 공동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판단력과 창의력,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표현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1>은 이한의 「너의 의무를 묻는다」 라는 책의 일부인데,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여러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타당한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시문2>는 이청준의 「눈길」 이라는 소설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국어(하)에 실려 있어서 수험생은 모두 알고 있는 지문이다. <제시문2>의 화자는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일대일 대응(“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자식놈의 도리”/“내게 베푼 바”:“장남의 책임”) 관계로 보고 있으며, 의무와 권리의 본질이 이익에 있는 것(“서로간의 빛의 문제”)으로 보고 있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구성원 사이의 ‘가족애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제시문2> 부분에서는 화자가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의무와 권리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대일 대응관계로 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인문계열 2번 문제

1. 출제의도

- 1) 교환경제에서 교환의 확대가 분업의 세분화 - 직업의 세분화 - 생산성의 추가상승 - 소득증가(경제성장)를 유인하는 선순환과정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무역이 진화되고 국제 분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산업사회의 생산 및 교환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존의 직업체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3) 논리적 추론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합적인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1>은 아담 스미스 (Adam Smith)의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의 일부를 발췌해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분업에 대해서 4장에 걸쳐 분석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계산할 수 있는 본성(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인간)은 교환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교환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일상생활이 되고,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할 수 있도록 만든다. 즉,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분업을 통해 세분화된 직업이 생겨나고, 직업을 통한 전문성의 증가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져 소득과 여가의 증가를 가져다준다. <제시문1>은 국부론의 분업에 대한 설명 중 교환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분업으로 인한 직업의 발생과 생산성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국부론의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시장의 확대와 화폐와 신용제도의 발달이 분업과 직업을 더 세분화시켜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속화시키고,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를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2>는 토마스 프리드만 「Thomas L. Friedman)의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2006)」의 일부를 발췌해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지고 올 생산, 소비, 유통과 무역 등에서의 혁신적 변화를 지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2>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아웃소싱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이 인도의 값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병원진단서를 필사하게 하는 아웃소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예는 상품에 대한 무역을 통해서 국가 사이에 분업이 간접적 경로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분업의 경로를 보여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국가 사이의 서비스 무역을 사람의 이동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예가 포함하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함의는 국가 사이의 분업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도 가속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역거래의 한쪽에서는 산업의 쇠퇴, 실업의 발생,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무역거래의 양 당사자들 사이의 소득격차(성장격차), 무역수지의 불균형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